

쓰레기 소각장 건립 '스톱'... 갈 길 바쁜 광주시 '어쩌나'

광산경찰, 삼거동 부지 인근 주민 12명 위장전입 사실 확인
주민동의 기준 미달로 사업 백지화 위기...사업 정당성 '타격'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관련기사 3면〉

경찰이 삼거동 부지 인근 주민 12명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면서 주민 동의율이 법적 기준에 못 미치게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사실상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다.

광주광산경찰은 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2명을 불구속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등록만 옮겨, 소각장 후보지로 삼거동이 선정되도록 동의 절차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삼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주민 동의 절차 시작 직전 6개월(2024년 3월~8월) 사이 31세대가 전입했고, 그중에는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일가와 직원들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단기간 잔성률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사주 여부나 병원 측 개입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시는 현재 삼거동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어질 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주민동의와 관련, 경제 300m 이내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5%)가 동의해 기준 요건(50%)을 충족했으나 위장전입이 사실상 드러나면서 47%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현운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장은 "경찰 기소 의견에 따라 후속 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이자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주민 설득은 더욱 어려워졌다.

국강현 진보당 광산구의원은 "광주시는 주민 동의 범위를 반경 300m로 한정하고 법적 요건만 충족했다며 문제를 축소해왔다"며 "원주민이 아닌 병원 직원들이 절차를 주도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장전입은 병원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살지 않고 주소만 옮겼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책임 소재를 광주시까지 확대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근일 삼거동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광주시장에게 문제를 알렸지만 밀어붙였다"며 "오는 9일 기자회견과 시장 면담에서 무효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은 시립병원 주도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시장과 병원 간 유착 의혹까지 있다"며 "만약 무효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입지결정취소 소송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신동금 통장도 "동사무소는 전입신고를 받아줬지만, 이후 주거 여부를 확인하려 했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과 기숙사 주소지에 전입한 16명 가운데 실제 거주자는 4명뿐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광주시는 이번 사건이 국가정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대응도 검토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으로 인해 국가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해당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다. 두 차례 공모 무산 후 3차 공모에서 삼거동이 지난해 12월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2일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최종 후보지 일대에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트랙터를 주차하고 반대 현수막을 걸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 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연설... 2차 한미정상회담 주목

국제현안 비전·정책 제시
북한 향해 대화 촉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 제8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 보안, 보건 협력 등 한국이 그동안 책임 있는 중견국 외교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온 의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이 대통령도 이번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할 전망이다.

특히 '북중러 밀착'이 과시될 가능성이 큰 중국

의 전승절 행사 직후에 열리는 유엔 총회인 만큼 이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관련 메시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관여의 동력을 얼마나 추동할 수 있을지도 관심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한 바 있어 이 연장선에서의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날 유엔 총회 참석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미 양국 정상이 첫 정상회담으로 상당 수준의

광주에 참고형 약국 - 무분별 '약 쇼핑' 우려 ▶6면

한승혁 가세... 'KIA 3포수 체제' ▶18면

조인호 광주·전남 미술사 - 오지호·임지순 ▶22면

'케미'를 형성한 만큼 짧은 환담이나 약식 회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2차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선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대북 대화 재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뉴욕 회동이 성사돼 실질적 진전을 담은 메시지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뉴욕 회담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와 관련 "워낙 다양한 국가의 많은 정상이 찾는 다자 외교의 장으로서 정상 외교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구체적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오광복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中 전승절 열병식 시진핑-푸틴-김정은 나란히 설 듯

오늘 베이징 천안문에서 열려
우원식-김정은 만남 어려울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열차를 타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면서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천안문에 설 전망이다.

2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김 위원장이 최섉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현승철 부부장 등이 수행했고, 리철주와 김여정의 동행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 동행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의 다섯 번째 중국 방문으로, 북중·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은 높지만 북중러 3

자 정상회담은 낮다고 국정원은 진단했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면 국제사회에 주는 군사-안보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서 양자 외교를 넘어 다자 외교 무대에 사실상 처음 등장하게 된다.

국정원은 방중 의도에 대해 "북중 관계 복원을 통해 대외 운신 폭을 넓히고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 체제 활로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전투공병 1000명을 이미 추가 파병했으며, 6000명 규모의 3차 파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기념식 참석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조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정상급 의전 순서 차이가 의미 있는 만남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곡로 062)942-7200 / 일반전화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 (도심: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 (도심: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